

# 군침 나는 해남 푸짐한 밥상 “맛 보세요”

### 해남군, 고구마밥·대갱이무침·박나물 등 향토음식 선보여 31일 ‘제1회 미남축제’ 앞두고 전통요리 재현 행사 눈길

고구마밥, 대갱이 무침, 박나물, 소고기 죽순전골 등 해남의 옛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 농업기술 센터에서 향토음식자원화연구회원과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평가회’가 열렸다.

지역농수산물을 이용한 해남 14개 읍면의 대표 음식을 모아 밥과 반찬, 특선 요리 등 10여종의 요리와 우리 차를 선보이고 시식회를 가졌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해남 미남(味南) 축제’를 앞두고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해남만의 전통 요리를 재현한 행

사로 관심을 모았다.

해남에서 나오는 연근에 파래를 입힌 연근파래전, 닭과 북어를 함께 볶는 닭볶음탕, 망둥어과인 말린 대갱이를 이용한 무침, 김을 한장 한장 켜켜히 쌓아 만든 김장아찌 등은 자연을 담은 해남 전통의 맛을 담았다는 평을 받아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향토음식자원화연구회는 해남 향토음식과 전통식문화를 연구하는 주민 모임으로 해남 미남축제에서 이날 선보인 메뉴를 중심으로 축제기간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1회 해남 미남축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흥사 일원에서 ‘자연 담은 해남 밥상! 맛보Go, 즐기Go’를



향토음식자원화연구회는 제1회 해남 미남 축제를 앞두고 지역농수산물을 이용한 해남 옛 밥상을 재현해 선보였다. <해남군 제공>

슬로건으로 해남 내추릴푸드관, 마스터셰프대회, 미남 보부상 등 다양한 공연과 체

험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완도군 “해상왕 장보고 기념일 제정하자”

### 학계 전문가 등 추진... ‘바다의 날’ 5월 31일 등 의견 제시

완도군이 ‘해상왕’ 장보고 기념일 제정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사)장보고연구회, 장보고 해양경영사연구회, 목포대 사학과와 함께 지난 11일 장보고기념관에서 ‘완도인 장보고와 세계인 장보고, 장보고 탄신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장보고 선양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포럼에는 목포대 강봉룡(사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와 장보고 연구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장보고 탄신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기존 바다의 날(5월 31일), 섬의 날

(8월 8일) 등을 활용해 장보고를 기념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보고수산물축제 기간인 5월 3일을 장보고의 날로 선포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장보고 선양 사업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바다의 날이 장보고 대사가 정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날인만큼 ‘장보고의 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군의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장보고의 날 제정을 위해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진도 청정 돌김 위판이 시작된 가운데 어가들이 고군면 원포 물양장에서 물김 위판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 진도 청정 돌김 위판 시작

### 고군면 원포 물양장서 첫 위판...맛·향 탁월 고가 판매

진도군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바다에서 자란 겨울철 별미 돌김이 지난 10일 고군면을 시작으로 수확과 위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고군면 원포 물양장에서 실시된 위판에는 한 어가에서 4.9t의 물김을 위판했으며 120kg 한 망에 평균 22만원에 거래돼 91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올해산 첫 햇김은 고군면 일대 김 양식

어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 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고 해 일명 ‘곱창김’으로 불린다. 맛과 향이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군의 2020년산 김 양식 규모는 1만 5649ha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24%를 차지하고 있다.

올 해는 11만4070t의 김 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위판고가 134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7억원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해 11만807t을 생산, 1115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김 육·해상 채묘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무면허 불법양식시설과 어업권 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2019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해남군립도서관 장관상 수상

해남군립도서관이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립도서관은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여건에도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과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을 확보해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진도군, 돼지열병 확산 방지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취소

진도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유입)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이틀간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에서 예정된 ‘제27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선발대회 개최 때 전국 진도개와 애견인 참가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있고, 방역 매뉴얼에 따른 행사장 내 진도개 개체별 방역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완도군, 특화림 조성사업비 6억 확보

### 중도지구에 황칠나무 1만그루 심는다

완도군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역특화림 조성 공모에서 황칠 특화림 조성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 2016년부터 황칠 특화림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가용지구와 연계해 중도지구 군유림 일대에 황칠특화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에 중도지구 30ha 면적에 4년생 이상 대묘 황칠나무 1만 그루를 심어 총 86ha 규모의 황칠특화림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완도군은 또 우수한 품질의 황칠 특산

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마쳐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황칠나무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원료 목록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한 원료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해 완도군은 황칠 약리활성 및 안전성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황칠은 완도의 고유 수종이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원이다”며 “황칠산업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